

김승옥 「생명연습」에 나타난 “자기 고백”의 기독교적 양상과 위악적 주체의 예속화 경향

이 미 진*

요약

기독교적 경험은 전후 한국의 후발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4.19세대 특유의 관념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김현은 「한국 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에서 한국에서의 기독교 토착화 문제를 당대 문학적 양식의 중요한 쟁점으로 언급한 바 있으며, 김승옥과 이청준과 같은 작가들에게 있어서도 기독교적 경험은 정신 형성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 글은 김승옥의 「생명연습」의 자기고백적 특성을 통해 4.19세대의 기독교 토착화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후발 산업화 사회의 예속적 주체화에 관한 논의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 소설 특유의 심리적 기제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자기 세계”의 위악적 주체성은, 전통이 빠르게 밀려나고 근대적 가치가 물밀 듯이 들이닥치던 당시의 세대 속에서 주체의 생존 가능성을 묻고 있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파악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초기 김승옥 단편들 중에서 「생명연습」은, 그 안에서 “신성한 것”으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필연적 회의가 “자기 세계”의 위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서의 “자기”는 근대적 조건으로 주어진 자유의 형식에 대한 비판이 아닌, 그 자체에 대한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주제어: 1960년대 한국문학, 김승옥, 생명연습, 미셀 푸코, 예속적 주체화, 자기고백

* 고려대학교 강사

목차

1. 서론
2. “자기 세계”의 이율배반과 60년대 자유의 (불)가능성
3. “자기 고백”의 기독교적 속성과 예측적 주체화 (assujettissement)
4. 김현의 기독교 토착화 관련 논의와 “자기 주체”의 양가적 세속성
5. 결론

1. 서론

‘개인’의 발견으로 표상되는 4.19세대의 문학적 특성은 한국에서의 자유주의의 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김승옥과 이청준과 같은 4.19세대 대표 작가들의 자유지향성은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추구된 경향이 있으며¹⁾, 이는 ‘미완’의 성격을 통해 규명되어 왔다. 최근에는 4.19적 ‘자유’의 한계를 재조망하는 작업들이 다수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지식인” “남성” 주체로 상징되는 4.19적 ‘시민’ 주체의 한계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4.19세대는 “개인의 발견”이라는 문제에 있어 한국문학사에서 유의미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독특한 문학적 스타일이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 할 수 있다.³⁾ 4.19세대 특유의 문학적 형상인 ‘자기’는 당대의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두면

1) 박진영,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자유’의 표상: 김승옥·이청준 소설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5, 2017, 100면.

2) 배하은, 「‘시민’적 주체와 이념의 문학사적 재구성」, 한국현대문학연구, 2016, 48면.

3) 김병익은 김승옥, 박태순, 이청준 등 60년대 등단한 동시대 작가들을 ‘4.19세대’라고 부르며 이들을 50년대 작가와 구분했다. 4.19세대의 작가들은 6.25라는 사건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문체를 개발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 (고지혜, 『4.19세대 소설의 자기형성과 분화』,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7, 3면 참고.)

서도⁴⁾ 이들 세대 특유의 정서를 반영함으로써 특유의 개인성을 구축했다. 이로써 4.19세대는 '자유'에 대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개인을 발견"한 한국 최초의 세대로 여겨지기도 한다. 1960년대 한국에서의 지식인 남성과 근대적 의미에서의 시민의 성격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자기'의 성격은, 4.19세대가 추구한 '자유'의 형상과도 관련된다.

본 연구는 1960년대 문학에서 '자유'의 문제는 대체로 박정희 군사정권의 민족주의적 통치체제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반발의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또 다른 다른 측면인 기독교의 영향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들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온 것이었다는 김현의 고백⁵⁾이나, 기독교적 모티프를 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시키는 이청준의 경우에도 기독교는 중요한 개인적 경험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해방을 맞았고 6학년에 오르면서 6.25를 겪었으며 전후의 궁핍한 시절에 사춘기를 보냈고 실존주의와 기독교주의로 변민하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사교의 축으로 삼게 된 대학 4학년의 초에 4.19를 치렀다"는 김병익의 언급⁶⁾에서 알 수 있듯, 4.19세대에게 '자유'는 "실존주의와 기독교주의"와 같은 서구적인 맥락에 1960년대 한국이라는 특수성을 조합한 독특한 성격의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문 편인데, 이를 통해 4.19세대의 자유에 관한 일반적인 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범주의 작업을 필요로 하는 까닭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승옥의 「생명연습」에 나타나는 '자기' 고백의 양

4) 1980년대 중반의 논의에서, 정과리와 성민엽은 4.19세대 문학의 리얼리즘적 성과를 각각 "의세의 압력과 그에 대응한 소설적 구조화"로, "현실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표출"했으나 "변혁을 위한 실천적 의지"의 부족으로 평가한다. (고지혜, 위의 글, 7면 참고.)

5) 김현, 「문학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김현문학전집』 1, 문학과지성사, 1991, 78면.

6) 김병익, 「생각 뒤에 숨은 생각」, 『김병익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8, 57면.

상에 나타나는 기독교의 영향을 미셸 푸코의 논의를 통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생명연습」은 김승옥의 소설들 중에서 기독교적 영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김승옥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고백’을 통한 서사적 긴장과 무관하지 않다. 「생명연습」, 「무진기행」 그리고 「서울 1964년 겨울」에 이르기까지 김승옥의 많은 작품들은 대화를 통해 인물의 사적인 비밀과 그에 대한 고백의 유도를 통해 긴장을 유발하는 서사적 전략을 제시했는데, 이는 주로 화자로 대표되는 중심인물들이 보여주는 위악적 자기서술과 메타적으로 관계 맺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김승옥 소설의 특성이 푸코가 언급한 미시통치권력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 추구와 관련된다고 보고, 「생명연습」에 나타난 “자기 세계”와의 연관성을 통해 이를 밝히고자 한다. 푸코의 논의에서 나타나듯, 기독교의 사목권력은 17세기 이후 근대국가형성 과정의 미시적 통치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통치 대상을 인구 즉 생명적 존재로 상징하는 생명권력과 연관된다. 김승옥의 「생명연습」에서 제시되는 “자기”의 생존 양상은, 미시권력 하에서의 이해 관계적 주체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영향과 생명 권력의 매커니즘을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 이 소설은 특히 ‘자기 고백’을 통해 그 서사적 바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사목권력과 미시통치권력과의 관련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자기 세계”의 이율배반과 60년대 자유의 (불)가능성

「생명연습」에서 화자의 유년시절 트라우마는 기독교적 원죄 의식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이는 특히 ‘고백’이라는 형식을 통해 소설적 허구를 형성한다. 「생명연습」에 나타나는 “자기 세계”의 위악적 형상은, 다소 실존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이었던 50년대의 영향과 그에 대한 정신적 극복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그것을 추구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미숙함을 동시

에 보여준다. 여기에는 유년시절 6.25 전쟁을 경험했으며, 4.19의 주체가기도 했던 당시 청년 세대의 불안과 불안이 반영되어 있었다. 4.19의 정신적 유산인 자유 지향성과 5.19의 반동적 통치성의 과정에서 형성된 60년대 청년 주체의 이중적 심리 기제는, '자유'에 대한 사적 추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적이기 이전에 개인적인 것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이 추구한, 새 것이자 낡 것이었던 '자유'는, 다수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청년 세대의 대변인”으로서 김승옥 소설 속 화자의 성격 또한 다분히 개인주의적인 동시에 자유주의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김승옥 초기 소설의 주요 인물들의 정신적 양상의 하나인 “자기 세계”는, 「무진기행」의 윤희중이나 「서울 1964년 겨울」의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듯, 주로 부조리한 현실세계로부터 기만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식으로 구축된다. 김승옥 소설의 ‘자기’가 4.19와 5.16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들 안에서 나름의 모더니티를 추구했던 당시 청년 세대의 몸부림을 통해 확보된 주체성이라면, 그 연장선상의 “자기 세계” 또한 50년대에서 60년대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양면을 내재하고 있는 독특한 세계 인식을 함의하고 있었다.

비평가 김현은 김승옥의 이와 같은 “자기 세계”를 “태도의 회극”이라는 표현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⁷⁾ 김승옥 소설 속 인물들의 세계 인식에 내재한다고 할 수 있을 이 “태도의 회극”의 뿌리는 ‘위약’이다. 이는 김승옥 소설의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세계 인식에 내재하는 모더니티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련의 ‘가벼움’을 통해 모더니티를 성격화하는 「무진기행」이나 「서울 1964년 겨울」과 달리, 초기 소설인 「생명연습」과 「건(乾)」, 「환상수첩」과 같은 작품들에서는 어둡고 어딘가 음침한 인물들의 위약적 성격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7) 김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김현문학전집』 1, 문학과지성사, 1991, 387면.

비록 그 양상은 다르지만, 초기 단편들로부터 중기 단편까지 김승옥 소설 속 인물들이 현실 세계의 부조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일관되게 위악을 취한다. 특히 초기 소설 속 인물들이 내세우는 “자기 세계”의 폐쇄성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소설 속 인물들이 취하는 위악적 방어기제의 필연과 한계를 동시에 내포한다 할 수 있다. 「생명연습」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은 “자기 세계”의 위악이 ‘개인성’에 대한 방어 기제를 통해 형성되었음을 다소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자기 세계’라면 분명히 남의 세계와는 다른 것으로서 마치 함락시킬 수 없는 성곽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성곽에서 대기는 연초록빛에 함뿍 물들어 아른대고 그 사이로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으리라고 나는 상상을 불러일으켜보는 것이지만 웬일인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세계’를 가졌다고 하는 이들은 모두가 그 성곽에서도 특히 지하실을 차지하고 사는 모양이었다. 그 지하실에는 곰팡이와 거미줄이 철새없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게는 모두 그들이 가진 귀한 재산처럼 생각된다.⁸⁾

상징주의적 색채가 짙은 위의 구절에서 “자기 세계”는 스스로를 남들로부터 분리하는 “성곽”이자 “지하실”과 같이 묘사된다. 그 “지하실”은 “연초록빛에 함뿍 물들어 아른대고”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과는 거리가 먼, “곰팡이와 거미줄이 철새없이 자라나”는 곳이다. 지극히 내밀한 개인성을 상징하는 “자기 세계”가 지하실과 같이 어둡고 축축한 공간으로 묘사되는 것은, 타락한 세계에 대한 방어 기제가 주체의 ‘위악’을 통해 발현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김승옥 소설에서 이러한 ‘위악’적 태도의 바탕이 되는 것이 ‘죄의식’이다. 이 ‘죄의식’은 단순히 ‘죄’를 짓는 행위 자체로부터 온다기보다는, 부조리한 상황 하에서 그러한 행위를 선택한 스스로에 대한 복합

8) 김승옥, 「생명연습」, 『김승옥 소설전집』 1, 문학동네, 1995, 30면.

적인 회한의 감정으로부터 기인한다. 가령 「생명연습」의 경우, 화자는 자신과 가족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던 형을 절벽에서 떠민 것에 대한 죄의식에 시달린다. 형이 이후 자살로 죽게 된다는 점에서 화자의 행위는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남아 있는 죄의식은 그의 행위가 형의 죽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말하자면 이때의 '죄의식'은, 직접적인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그에 연루된 죄에 가담함으로써 유발되는 것이다. 이는 김승옥 소설 속 "자기" 주체가 갖는 '위악'의 특수한 성격을 구성한다. 김승옥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의 악행이 유발하는 사건의 흐름이 아니라 악을 가장한 인물의 행위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죄책감이 사건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김승옥 소설 속 인물들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인 비판이 그 행위를 유발시킨 비가시적 알력과 일종의 공모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인물들의 위악적인 태도는 사실상 악을 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비도덕적이며, 이는 「건(乾)」에서 윤희누나를 운간하려는 형들의 계획에 가담하는 어린 화자의 경우에서 나타나듯,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이처럼 김승옥 소설의 '죄의식'은 악행에 대한 반성을 위한 단순한 추동 기제라기보다는, 도덕적 실천의 자율성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심리적 생존을 모색하는 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설혜경은 이를 "적게 지불하고 많이 가져가"려는 자본주의 교환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통해 분석하며, 김승옥 소설 속 인물들의 위악적 태도를 욕망과 죄의식 사이의 긴장에서 "욕망을 적절히 충족하고 심리적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경제적 방편이라 비판한다.⁹⁾ 여기에서 '죄의식'은 타인을 사물화 시키며 교환의 대상으로 삼고 교환 논리를 통해 감정적 소모를 논리적으로 보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주장은 김승옥 소설의 '죄의식'이 갖는 이해 관계적 측면을 드러낸다는 점과 그것이 갖는 자본주

9) 설혜경, 「김승옥 소설의 죄의식의 경제와 자본주의 논리」, 『현대문학의 연구』 48, 2012, 363면.

의적 함의가 갖는 부정적 경향을 지적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하지만, ‘죄의 식’이 해소할 수 없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측면이 있다.

이 ‘나머지’는 어떻게 소구될 수 있을까. 적어도 이 문제는 4.19 세대가 추구한 자유에 대한 갈망과 5.16이라는 강압적 통치 권력의 등장 사이에 놓여 있는 비합리적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로서의 “자기 세계”가 갖는 이율배반적 성격의 복잡함과 관련되는 것 같다. 위악은 그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도덕적 기준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감정의 문제와 연관된다. 이는 한국에서의 자유가 갖는 독특한 위치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내재하는 모순의 해결되지 않는 정서적 측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주지하듯 개인의 고립을 통해 삶을 자신에게 속하게 하는 고전적 의미에서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17세기 유럽에서의 소유적 개인주의의 근간을 이루며, 이후 18세기 부르주아 시민사회에서의 자유와 개인의 발달로 인해 그 형태를 갖추게 된다.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은 일반적으로는 고전적 자유주의 자체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19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과 그에 따른 사회 구조의 변화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윌러스틴이 지적했듯,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이데올로기가 맞물리면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자유가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구성하는 헤게모니로 군림하게 됨에 따라 강력해졌다고 할 수 있다.

김승옥 소설의 “자기 세계”는 일견 이와 같은 서구적 의미에서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 자리한 누추함은 소설 속 “자기” 주체가 추구하고자 한 ‘자유’가, 1960년대 한국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의 후발 산업화 안에서는 온전히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음을 드러낸다. 이에 따라 김승옥 소설 속의 ‘자유’는 보다 소극적으로, 내밀한 방식으로 추구된다. ‘위악’은 이러한 소극적 주체가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봉착을 드러낸다. “60년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내가 써낸 소설들은 한낱 지독한 염세주의자의 기괴한 독백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김승옥 자신의 고백을 통해 나타나듯, 위악은 해방 후 이승만 정

권이 표방한 '냉전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박정희 정권의 '탈자유주의' 사이의 심리적 혼란과 관련된다. 4.19적 자유가 이상에 불과했음을 체험한 세대에게 '위약'은 일그러진 자유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방편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죄의식'의 경제는 단순히 자신에게 유리한 교환관계를 위한 심리적 기재라기보다는 (그것의 성과와 관련 없이) 일종의 '살아남기'의 모색으로 이해가 가능해진다.

'위약'을 통한 '살아남기'가 갖는 도덕적 애매함은 다시 주체가 추구하는 '자유'의 애매함과 맞닿는다. 소설 속 주체는 지하의 음침함과 괴괴함을 통해 형성되는 '자기 세계'를 오히려 아늑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권력에 대항하기 보다는 예속을 통해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의 '위약'은 박정희 정권의 규율 체계가 이미 "삶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강압적 규율로서만 작동하지 않으며¹⁰⁾, 생명 통치 권력을 통해 작동하는 측면이 있음을 드러낸다.¹¹⁾ 즉 '위약'은 '자유'를 한정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허락하는 통치 체제에 대한 '살아남기'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위약적 '자기' 주체는 언제나 이율배반적으로만, 즉 권력에 귀속됨으로서만 스스로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10) 홍태영, 「민족주의적 통치성과 '국민' 만들기」, 문화와 정치, 2019, 102면.

11) 이때의 '자유'는 "특정한 인물에게만 부여된 예외적 권리나 특권이 아니라 운동과 이동의 가능성, 사람이나 사물의 순환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의 형태 하에서 통치 기술은 "인간의 악한 본성 같은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물의 본성을 사유해야 한다는 관념"에 기초하게 된다. 즉 "인간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인간이 행해서 득이 되는 것, 인간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물리적 "상관물"로 인식함에 따라 인간의 자유를 이데올로기가 아닌 권력의 테크놀로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오트르망 옮김, 난장, 2011, 87-88면 참고)

3. “자기 고백”의 기독교적 속성과 예속적 주체화 (assujettissement)

김승옥 소설의 위악적 주체는 이처럼 근대적 ‘자유’의 표방이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이해관계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생명연습」에 나타나는 “자기 세계”의 누추함과 불쾌함은, 아이러니하게도 화자에게 “귀한 재산”으로 인식되는데, “타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성곽’과 같은 “자기 세계”의 폐쇄적 개인성이, 역설적으로 “자기 세계를 가졌다고 하는 이들” 사이의 동질성을 발현하는 조건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기 세계”는 누추하게나마 유지됨으로써,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의 자유를 드러낼 수 있다. 이때 누추함은 폐쇄적 고립이 아닌, 연결의 매개로서 작용하며, 사적인 소유가 궁극적으로는 공적인 관계물임을 드러낸다.

말하자면 은밀하게 구축되는 동질감은 김승옥 소설 속 “자기 세계”를 온전히 사적 내밀함에 머물지 않게 하는데, 그를 통한 연계는 「서울 1964년 겨울」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며, 「무진기행」에서는 로맨스의 계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김승옥 소설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와 같은 정서적 공감대의 형성이 주로 “고백”의 형식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사실 ‘고백’은 ‘개인’의 내면에 대한 공적 담론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근대 소설의 형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승옥 소설에서의 ‘고백’은 폐쇄적 심리상태의 ‘주체’로 하여금 타인과의 연계를 감각하게 함으로써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서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특이성을 갖는다. 이는 김승옥 소설의 특유의 메타적 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¹²⁾ 김승옥 소설에서 “고백”은 각각의

12) 송태욱은 김승옥 소설 속 고백의 장치들이 인물의 고백을 간접적이거나 이중적으로 만들어서 고백을 통해 자신을 은폐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김승옥 소설에서는 그와 같은 ‘자신의 은폐’가 감추어야 할 무엇을 새롭게 드러낸다. (송태욱, 『김승옥과 고백의 문학』, 연세대학교

인물들 사이에 내밀한 심리적 연결망을 구축하며 특유의 감수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초기작인 「생명연습」에서는 고립된 “자기” 주체가 “세계”라는 객관을 확보해나가는 방식으로서의 ‘고백’이 부각되는데, 이는 “자기”라는 폐쇄적 청년주체성이 생존의 문제를 세계 안에서 재인식해나가는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 때문에 이때의 “고백”은 세계에 대한 실존적 고찰에 머물지 않고¹³⁾, 변화하는 권력 테크놀로지 안에서 “자기 세계”의 보존을 위한 연결망의 요구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백’의 역할은 통치 권력에 대한 주체의 예속화의 문제와 밀접하게 공감한다. 알튀세르와 푸코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된 “예속적주체화” 개념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대한 주체의 예속화 경향의 문제를 포괄한다. 예속적주체화(assujettissement, subjectification)는 근대이후 권력 관계의 변형과 그부터의 자율성 확보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는 데카르트 이후 개인화(individualization) 과정에서 나타난 규율 권력의 작동 양상의 변화가 어떻게 주체의 예속화 경향을 불러왔으며 그 안에서 어떻게 주체성이 재생산되어 왔는지에 대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¹⁴⁾ 특히 푸코의 개념은 근대 주체의 형성과정에 기독교적 전통이 어떻게 개입되는가를 특유의 계보학적 방법을 통해 논의 안으로 끌어들인다.

푸코의 『성의 역사』 1권에서 “길 잃을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서는 목자”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사목권력을 통해 생명권력을 통한 인구 통치의 계보를 설명한 바 있다. 기독교적 ‘자기 고백’은 개인으로 하여금 비밀을 만들고 이를 발설하게 하는 종교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사목권력은 신자유주의적 미시권력의

박사학위 논문, 2003, 2면 참고.)

13) 「생명연습」의 고백을 실존주의의 맥락에서 조망한 논문으로는 한은주, 「「생명연습」에 나타난 ‘자기 세계’의 실존적 의미와 고백의 연행 서사, 고흥논집, 2021 이 있다.

14) 진태원, 「코기토, 소유적 개인주의, 예속적 주체화-서양 근대에서 개인과 개인주의」, 『민족문화연구』 89 참고.

계보를 형성하며, 그와 같은 통치 아래에서 주체는 권력에 귀속되며, 예측화된다. 고백이 근대 이후 진실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효한 기술의 하나가 된 것은 기독교적 자기 고백이 사회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진실 생산의 강력한 방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백의 제도화로 인해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진실은 언제나 고백을 통해 그 비밀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인식되었으며 동시에 권력은 그것을 억누르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푸코는 이러한 경향이 문학과 철학의 양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인다. 이제 문학은 영웅이나 성자의 모험적 이야기대신 낱말들 사이에서 진실을 찾고자 하는 내밀성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철학 또한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의식을 확실성을 모색하는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¹⁵⁾

이처럼 고백 문학의 근대적 양상의 기저에는 분명 기독교적 “자기 고백”의 영향이 존재한다. 비서구권 문학에서의 기독교적 고백의 양상은 문학의 근대적 발현 양상에 따라 보다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한국 1900년대 근대 문학에서는 국권상실의 비극과 자발적 근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타난 자괴감과 수치심으로 인한 죄의식이 고백 문학의 한 바탕을 이룬다고 여겨지기도 한다.¹⁶⁾ 한국 근대 문학의 형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일본 근대문학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수입된’ 기독교의 영향이 작용했는데, 가라타니 고진에 의하면 일본 근대소설에서 나타나는 고백은 서구의 경우와 같이 “작가들이 이야기를 진실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허구임에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꾸미기 위한 고백의 형식(리얼리즘)과 달리, 삼인칭과 일인칭이 겹쳐지는 독특한 사적 장소에서 객관성을 모사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갖는다.¹⁷⁾ 일본 근대소설 특유의 〈사소설〉 형식의 기반이 된 이와 같은 고백의 양식 또한 기독교적 “자기 고백”의 근대성을 관계적으로 구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⁸⁾

15)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이규현 옮김, 나남, 1990, 81-82면 참고.

16) 우정권, 「1900~10년대 한국 근대 고백적 단편 서사의 양상 연구」, 『국어국문학』 127, 2000.

17) 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옮김, b, 2010, 111면.

일본 사소설의 영향을 받은 식민지시기 근대소설의 내면 고백 양식을 바탕으로 구축된 한국 근현대 소설의 “자기 고백”의 특수한 양상은, 50년대 소설에서 목격되는 전후 실존주의적 경향에서도 묻어난다. 그 영향 아래 구축된 김승옥의 소설은 그러나 50년대 소설에서도 나타나는 사소설적 내면 고백의 양식과는 또 다른 방식의 “자기 고백”의 서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등단작인 「생명연습」의 경우에서 이미 뚜렷하게 드러난다. 김승옥 소설에서 나타나는 고백의 양상은, 근대 초기 이광수나 김동인 등의 단편 소설에서 목격되는 자기 고백체와 다른 독자적인 경향을 구축하며, 나아가 50년대 소설에서 보다 뚜렷하게 목격되는 실존주의적 자기 고백과도 다른 양상을 띤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의 내밀한 심리구조를 반영하는 「생명연습」의 ‘자기’ 고백은, 무엇보다 “한국의 60년대식 주체”의 개인성과 권력에 대한 대응 양상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소설 속 ‘고백’의 양상이 주로 성적(性的) 고백을 통해 구축된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푸코의 논의에서 나타나듯, 성적(性的) 고백과 기독교적 고백은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닌데, 이는 성적(性的) 고백 특유의 사적(私的) 성격과 관련한다. 일례로 『성의 역사』 1권에서 푸코는 성의 진실을 산출하는 두 가지의 역사적 방식을 제시한다. 첫째는 ‘아르스 에로티카’ 성애술(性愛術)을 갖춘 사회이며, 중국, 일본, 인도, 로마, 아랍사회 등이 이에 속한다. 쾌락이 쾌락 자체로 인식되는 이들 사회에서 앓은 “성적 실천”을 그 자체로 내부

18) 고진은 특히 일본근대 문학적 주체 형성이 “고백”이라는 제도에 얽혀 있는 권력 관계를 가시화한다고 말한다. 이는 고백이라는 주제적 측면보다는 문학적 형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일례로 다야마 가타이의 『이불』에서의 근대성은 그 성적 고백의 측면에 앞서 “삼인칭이면서도 실제로는 일인칭과 동일한 서술방식”을 통해 “삼인칭 객관 묘사를 외관상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는” 형식에 자리한다. 이와 같은 형식에 의해 가타이는 “〈진실〉 그 자체가 고백이라는 제도 안에서 가시화 된 것”임을, 따라서 “〈정신〉이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고백이라는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적인 것”임을 전달한다. (가라타니 고진, 앞의 책 참고.)

로부터 발전시킴으로서 그 효과를 증대시키는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 그러나 서구의 문명은 ‘아르스 에로티카’가 아닌, ‘스키엔티아 섹스알리스’를 실천한다. 서구사회에서 섹스의 비밀은 ‘권력·앓’의 구도 속에서, 고백의 방식을 통해 발전한다.

푸코에 따르면 이러한 ‘고백’의 방식은, 기독교의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독교는 “고백”이 진실한 담론이 될 수 있는 정당성을 보증했기 때문이다.¹⁹⁾ 성에 관한 고백의 전통적 강요는 18-19세기에 이르러 과학적 형태로 구성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섹스는 보다 비밀스럽고 “각자가 자기 속에 지니고 있는 어둠의 부분”이 된다. 우리가 성적 고백을 통해 “의식 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믿는 우리 자신의” “깊이 파묻힌 진실을 말하기”를 요구받게 되면서, 성은 주체에 관한 앓의 문제와 상호작용하게 된다. 푸코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기독교적 고해와 사법적 자백의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말한다.²⁰⁾

이처럼 성적 고백은 개인의 가장 내밀한 부분에 대한 권력의 규율화를 담론화한다. “근대 사회에서 권력은 실제로 성을 법과 통치권의 방식으로 규제하지 않음으로서 “금지”와 “차단”이 아닌 방식으로 권력이 섹스에 접근하도록 했다.²¹⁾ 통제 불가능한 욕망에 대한 규율화인 성의 장치적 메커니즘의 특징 중 하나는 권력과 저항을 대립구도로 작용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누구라도 필연적으로 권력의 안에 있으며, 누구도 권력에서 벗

19) “그때부터 우리는 고백이 유별나게 행해지는 사회가 되었다. 고백의 효과는 사법, 의학, 교육, 가족관계, 애정관계, 가장 일상적인 영역, 가장 엄숙한 의례로 멀리 퍼져나갔고, 누구나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며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몽상을 고백하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고백하며 자신의 질병과 빈곤을 고백할뿐더러, 누구나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것을 최대로 정확하게 말하려고 열심이고, 누구나 자신의 부모, 교육자, 의사,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고백하며, 다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고백은 기쁨과 괴로운 속에서 자기 자신만이 볼 수 있을 뿐인 글로 씌어지기도 한다. 누구나 고백한다. 아니 어쩔 수 없이 고백해야 한다.”(미셸 푸코, 앞의 책, 80면.)

20) 미셸 푸코, 앞의 책, 91-92면.

21) 미셸 푸코, 앞의 책, 111면.

어나지 못”하는²²⁾ 근대 권력의 장치적 메커니즘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푸코는 철저하게 서구적인 계보를 통해 분석하고 있지만, 「생명연습」의 성적 고백은 “유동적인 권력관계의 장(場)” 속으로 섹스에 관한 담론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예속적 주체화의 문제를 서사화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군사정권 아래에서의 강제적 예속화라는 1960년대 특유의 “압축적 근대성”의 특징을 통해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김승옥 소설에서의 “위약”은 이러한 시대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현실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이 아닌 규율 안에서의 관계성, 권력 관계에 대한 미묘한 전복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명연습」, 「건(乾)」, 「무진기행」과 같은 김승옥 초기 소설 속 고백이, 대화를 통한 이중적 구도를 통해 전개된다는 점에서, 주로 1인칭 화자의 깊은 내적 고백을 통해 전개되는 사소설과는 구분되는 전략을 갖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명연습」의 화자는 유년 시절의 기억을 통해 자신의 내적 감정과 죄의식을 독자에게 고백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한 자기 고백을 한(韓)교수와의 만남과 대화 사이사이에 배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혹은 한교수의 고백과 양상בל을 이루게 한다. 때문에 이 소설의 자기 고백의 서사적 전략은, 오히려 고백의 진실성을 모호하게 만들며, 인물들 사이의 내재적 권력 관계를 은밀하게 부각시키는 동시에 그것을 와해한다. 이러한 이중적 고백의 구도는 사실상 도입부에서부터 일관되게 나타난다. 소설은 화자와 한교수가 다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머리뿐만 아니라 눈썹까지 밀어버린 학생을 발견하는 장면에서 시작되는데, ‘대화’의 형태는 무엇보다 둘 사이의 관계의 변주를 가능하게 하는 시공간적 조건을 마련한다.

“내가 잘못 봤나? 어째 눈썹이 전연 없는 것 같아.”

22) 미셸 푸코, 앞의 책, 115면.

“밀어버렸지요. 먼도로 싹 밀어버렸어요. 눈썹뿐만 아니라 머리털도 시원스럽게요.”

“아니 왜?”

교수님은 바야흐로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러다가 쑥스러운 질문이었다는 듯이 또 하얀 이를 가지런히 내보이며 웃으시는 것이다.

“극기?”

스스로 대답해버렸다는 듯이 교수님은 아까 자세로 돌아갔다. 뒤가 개운치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역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싱긋 웃음을 보내주시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마음이 환해지는 듯했다.

“요즘 학생들간에 유행이랍니다. 우습죠?”

나의 이런 물음에 그러나 교수님은 고개를 가로젓고 계셨다. 미소는 여전히 띠셨으나.

“안 우스우세요?”

“자넨 우습나?”

“네 우스운 걸요.”

나는 우습다. 어머니와 누나와 그리고 형도 함께 살고 있었을 때이니까, 국민학교 육학년 때, 사변이 있던 그 다음해 이른봄이었다.(후략)²³⁾

화자는 한교수와 달리 머리를 민 남자를 우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유년시절의 기억이 자리한다. 그런데 그 기억은 대체로 화자가 마주한 개개인의 내밀한 성적비밀을 통해 직조된 것이다. 화자의 1인칭 서술은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에 부흥회를 주관하러 온 전도사가 “스물인가 되던 어느 해에 손수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버리신 분”이란 이유로 추앙된 것과, 그 옆의 미국인 선교사의 수음을 목도한 기억, 고향 친구 영수의 여성편력 등을 떠올린다. 그것은 이후 어머니의 남성편력과 그에 대한 반항으로서의 형의 횡포로 연결되며 마침내 누나와 함께 형을 죽이고자 계

23) 김승옥, 앞의 책, 22면.

획했던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1인칭 서술에서의 자기고백과 달리, 화자는 자신의 기억을 한교수에게 말하는 대신 한교수로부터 고백을 받아내고자 한다. 이러한 태도는 교수-학생이라는 위계적 관계와 맞물려 독특한 효과를 자아내는데, 한교수의 목소리는 언제나 화자가 그에게 무언가를 물음으로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만 독자에게 제시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교수가 화자에게 과거 유학 길에 오르기 전에 옛 연인의 “치녀를 빼앗은 것”을 고백할 때, 이들의 위계는 미세하게 전복된다. 이러한 전복은 무엇보다 화자가 취하는 ‘위약’적 태도가 한교수에게 전이됨으로서 가능해진다.

“오늘 저녁 입관하시는 데 가보시겠군요?”

나는 고개를 돌려서 물었다. 교수님은 난처한 웃음을 띠셨다.

“내가 올까?”

“네?”

“정순의 죽은 얼굴을 보고 내가 올까?”

“물론 안 우시겠죠.”

“.....”

“.....”

“그렇다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군.”²⁴⁾

「생명연습」의 화자에게 있어서 위약은 폭력적인 사회적 질서를 감지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를 추구하는 본능적 기제와도 같다. 그러나 이러한 위약은 ‘자기세계’를 통해 타인과 공모관계를 이룰 때에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자기세계’에 “지배관계”가 개입된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만 그에 대한 폭로 과정에서의 위약적 태도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위약이 “자기” 주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위압적인 사회적 상황 하

24) 김승옥, 앞의 책, 54면.

에서의 이중적 자율성 문제, 미완의 근대화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김승옥 소설 속 위악적 공모 관계는 이와 같이 고백으로 구성된 진실에 도덕적 결함을 남기는 방식으로, 해소되지 못한 비밀을 남겨둔다. 그리고 이는 주체에게 “자기 세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어떤 것을 불완전하게나마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던져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악적 전략은 두 가지 요소로 인해 가능해진다. 애초에 “고백”에 작용하는 정신적 강요, 즉 종교적 동기가 상당히 불완전하게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인물들이 처한 상황의 강압적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아가 폭력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백의 양상은 인물들의 세속적 성격을 부각시키는데, 이는 고백한 자의 죄 사함이 아니라 오히려 고백한 자들 간의 죄 의식에 대한 은밀한 공모로 이어지게 한다. 이는 “자기 세계”를 가진 것으로 상정되는 인물들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동질감을 통해 구체화 된다. 이러한 동질감은 무엇보다 주체가 처해 있는 무력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주체성의 손상을 일으킬 정도로 강압적인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인물들 간의 내밀한 공모관계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쾌(快)의 운용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서로 간의 비밀의 지위를 강등시키는 경향은 위악적 “자기” 주체들이 자기세계를 (음침하게나마) 유지할 수 있게 만듦으로서 ‘죄 의식’에 완전히 함몰되지 않을 수 있게끔 한다.

그러나 「생명연습」의 성적 고백을 통해 드러나는 개인의 나약함은 동시에 상대적으로 약한 타자에 대한 폭력을 드러낸다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김승옥 소설에서의 고백이 형성하는 특유의 예속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악’의 성격을 재구성한다. 생명에 대한 욕구는 종교적인 이유로 “스스로를 거세한” 전도사가 아닌 그 옆의 “비쩍마른” 양인 선교사에게서 나타나며, 온종일 다락방에서 알 수 없는 증오를 곱씹는 형이 아니라 문란한 어머니에게 속한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완전한 ‘악’이 아니라, 그것을 다만 흉내냄으로서 그렇게 보이도록 위장하는 ‘위악’의 방식으로 생존

한다.

4. 김현의 기독교 토착화 관련 논의와 “자기 주체”의 양가적 세속성

앞서 가라타니 고진의 논의를 통해 보았듯, 푸코가 언급한 고백의 기독교적 영향은 서구의 경우에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백의 만연은 고백의 주체에게 작용하는 정신적 권력관계로부터 연유한다. 따라서 사목권력에서 연유한 규율메커니즘은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맞물려 있다. 누구나 자신의 범죄와 과오, 욕망을 고백하지만 이는 누구나 고백을 강요당하기 때문인 것이다. 중세 이래 고문이 고백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던 듯, 이제 강요된 고백은 진실을 구성하는 일종의 “제도”로서 기능하게 된다. 고진은 이와 같은 고백의 제도화를 일본 근대 문학에서의 사소설의 특성과 연관 지었다. 그러나 고진의 논의는 앞서 언급한 위악적 주체의 이해(利害) 추구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 기독교적 죄의 고백과 자기반성에 대한 내밀한 형식화의 한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사소설과 한국 근대 소설의 경우에 나타나는 고백의 형식은, 60년대 소설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승옥, 이청준과 같은 4.19 세대의 소설에서의 고백은 오히려 자기 위장과 관련되며, 특히 김승옥의 경우 이는 위장술, 즉 위악과 관련된다. 이때의 고백은 죄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가적이다.²⁵⁾

이러한 양가성은 한국 사회가 개인의 자율성과 기본권과 같은 근대적 조건이 갖추어진 시대로 비로소 접어들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4.19세대의 문학에 있어서 ‘자기 고백’은 급격한 산업

25) 우정권, 『한국 근대 고백소설의 형성과 서사양식』, 소명, 2004.

화와 같은 60년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통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논의에서 이는 앞서 언급한 기독교의 문제가 ‘기독교 토착화’의 문제로 세밀화 되어야 할 필요성과 관련된다. 김현은 「한국 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에서 한국의 현세 중심적 사상이 기독교의 내세적 윤리와 필연적으로 상충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무축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 사회의 현세지향성은 서양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종교개혁이 성취한 윤리적 지점을 전유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일례로 맑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현세적 금욕주의”라고 부를 때의 “금욕주의”는, 한국의 기독교에는 상당히 누락되어 있다. 이는 무축신앙에 기반을 둔 한국 고유의 현세지향성으로 인해, 기독교의 금욕주의가 매끄럽게 수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²⁶⁾

김현은 또한 고려와 이조시대의 문학에서의 “양식화”의 실패는, 외부의 정신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한국 고유의 정신성을 변증법적으로 지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식민지 시기 한국 근대 문학이 한국어의 활동적 특성보다는 이념의 이식에 천착하는 경향을 보인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비판한다. 때문에 60년대 문학에서 문제의 과제는 기독교 토착화 과정에서 한국 특유의 현세 중심적 사상이 피상적으로 세속화되지 않도록 정신성의 역사적 가능성을 현재화하는 것에 있었다. 김현은 서양의 근대정신의 틀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적 내세지향성이 한국 고유의 전통적 정신성과 부합하지 않는 지점에서 한국 사회 특유의 세속적 물질지향성이 발현되었다고 보았으며,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중반의 커다란 단절이 기독교 토착화 과정에 있어서 끼친 악영향과 관련하여 이를 우려하였다. 때문에 그에게 있어 당대 문학의 “양식화”에 관한 논의는 기독교라는 정신적

26) 김현은 신라시대 향가를 한국 고유의 정신성이 문학적 양식으로 표현된 우수한 사례로 꼽는 반면 고려가요와 이조시대의 문학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고려가요와 이조시대의 문학이 외래 풍속과 종교의 유입과정에서 일어난 다양한 충동을 고유의 정신적 형상을 통해 내면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현,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 『김현문학전집』 2, 문학과지성사, 1991, 31-32면.)

체험과 세속적 이야기들, 즉 성(聖)과 속(俗)의 균형으로서의 문학성에 대한 질문과 만난다.²⁷⁾ 이는 무엇보다 “현실들을 사실형으로 파악”하는 일이자 그것을 바탕으로 문학적 계보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의미했다. 때문에 김현에게 기독교 토착화에 관한 문제는 60년대 한국의 정신성을 구성하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 자기 인식과 관련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4.19세대의 특수한 개인화와 그에 상응하는 인식론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서의 기독교적 경험이 갖는 고유한 맥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동시에, 그것이 단순한 종교적 담론 보다 복잡한 측면에서의 논의들을 수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김승옥 소설의 기독교적 양상 또한, 단순히 종교적 형식을 통해 이해되기에 앞서, 시대성을 통해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소설 속 인물의 “죄의식”이 종교적 회개의 기반이 되기보다는 쾌의 경제적 운용과 관련된다는 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²⁸⁾ “죄의식”은 60년대의 압축적 산업화와 급진적 서구화 과정에서 “자기” 주체를 존속하는 하나의 전략이 된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상징에서 벗어나 세속화된다. 이때의 세속화는 종교화된 자본주의 장치들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환속화’와 구별되는데, 아감벤에 따르면, 환속화(secularizzazione)는 “억압의 형식”이지만 세속화(profanazione)는 그와 반대로 자신이 세속화하는 것을 무력화한다. 즉 “환속화가 권력의 실행을 성스러운 모델로 데려감으로써 권력의 실행을 보증한다면, 세속화는 권력의 장치들을 비활성화하며, 권력이 장악했던 공간을 공통의 사용으로 되돌린다.”²⁹⁾

“자기”의 세속적 성격은 이처럼 자본주의적 산업화 아래에서의 권력에

27) 윤재민, 「한국적 표현주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 후기 세속시대 한국의 기독교 신학 담론과 김현」, 한국현대문학연구 67, 2022, 218면.

28) 프로이트, 「정신적 기능의 두 가지 원칙」,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 외 옮김, 열린책들, 2003, 19면.

29) 조르조 아감벤, 『세속화 예찬』, 김상운 옮김, 난장, 2010, 113면.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지만, '위악'이라는 특수한 기제는 죄의 신비주의적 속성을 걷어내는 동시에 죄의 무게를 별 것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위험 또한 안고 있다. 특히 그것이 허무주의와 만나게 된다면, 힘에 의한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생존을 궁극적으로 긍정할 수 있을 가능성 또한 갖는다. 위악적 허무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을 이러한 경향은, 김승옥 소설을 윤리적으로 이슬이슬한 지점까지 몰고 가며, 때로는 특유의 매력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시대적 문제를 현재적 구속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서 '저항'의 방식을 무력화 하는 측면 또한 존재할 수 있다. 말하자면 쾌락과 권력의 관계를 통해 도덕적 위선을 폭로하는데 까지 나아가더라도, 이를 다시 또 다른 권력 관계로 회귀시킴으로써 끊임없는 '연습'에 머물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김현이 60년대 기독교의 현세지향성을 우려했던 동시에 그로부터 어떤 새로운 정신적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했던 것처럼, 김승옥 소설의 위악적 주체의 양면적 성격은 끝에서 모색되는 시작점을 갈구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는 또한 '근대'를 전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비서구 국가에서의 근대 주체가 갖는 아이러니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한 60년대식 아이러니 위에서 김승옥 소설의 "위악"은 성(聖)과 속(俗) 경계선 상에 이슬이슬하게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김승옥의 「생명연습」을 중심으로 4.19적 개인인 '자기'의 불안이 1960년대의 통치 권력에 대한 '자유'의 추구하고 관련되었다고 보고, 이를 푸코의 "예속적 주체화" 개념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첫째로는 「생명연습」에 나타난 자기 고백의 측면이 푸코가 언급한 사목권력의 기독교적 기술과 닿아 있다고 보았고, 둘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해소되지 않는 위약의 세속적 측면이 한국 특유의 기독교 토착화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 특유의 기독교적 정서가 4.19세대의 개인성에 개입되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위약'이라는 특수한 정서가 1960년대 한국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

「생명연습」이 4.19세대의 문학적 특성을, 나아가 김승옥 소설의 특성을 온전히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이 소설은 “자기 세계”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그 원초적 형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본고의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³⁰⁾ 특히 ‘고백’을 통해 구축되는 「생명연습」 특유의 서사 구조가 그러한데, 독자에게로 향하는 화자의 1인칭 고백은 단순한 내적 독백의 양상을 띠고 있다기보다, 등장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제시되는 또 다른 ‘자기 고백’과 메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일본근대문학의 경우나, 50년대 전후 한국현대문학에서 나타나는 내적 고백의 형식과는 구분되는 이러한 고백의 서사는, ‘자기’ 주체의 이중성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유보하며, ‘위약’이라는 이율배반적 심리기제에 작용하는 공감의 배경에 대한 해석의 근거로 작용한다.

김현의 기독교 토착화 관련 논의를 통해 「생명연습」을 돌아보면, ‘자기 고백’과 ‘죄의식’과 같은 종교적 모티프들은 정신과 세속의 경계에서 치열하게 스스로를 증명하는 60년대적 개인성과 만나게 된다. 「생명연습」이 김현이 언급한 ‘양식화’에 부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것이겠으나, 이 소설의 기독교적 특성들은 어떠한 균형보다는 오히려 이슬이슬한 방식으로 세계를 시험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시대적이다. 역설적이게도 김승옥 소설

30) 이 소설은 특히 ‘자기’의 문제를 ‘위약’을 통해 제시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위약’은 주로 폭압적 시대 상황 하에서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여기에는 좀 더 다양한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4.19세대의 ‘자유’의 출발점을 폭력에 대한 대립항의 성격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적 소유를 바탕으로 한 근대적 시민권에 대한 추구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후자의 관점은, 6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의 또 다른 측면인 미시권력에 기반한 통치 체제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위약’의 문제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의 모더니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또한 것처럼 위태롭고 판단 불가능한 지점들 덕분일 것이라 생각된다. 다소 거친 논의에 그친 감이 있으나, 본 연구는 그러한 위태로움이 신자유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의 관점에서 또 다른 문제를 던져줄 수 있다고 보았다.³¹⁾

31) 예를 들어, 권력에 대한 예속을 통해 상정되는 “예속적 주체”가 어떻게 ‘자유’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와 같은 문제가 김승옥 소설의 ‘위악’과 ‘자기 세계’의 문학적 성격과 닿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김승옥, 「생명연습」, 『김승옥 소설전집』 1, 문학동네, 1995.

2. 논문 및 단행본

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옮김, b, 2010.

김병익, 『김병익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8.

김현, 『김현문학전집』 1, 문학과지성사, 1991.

_____, 『김현문학전집』 2, 문학과지성사, 1991.

고지혜, 『4.19세대 소설의 자기형성과 분화』,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7.

박진영,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자유'의 표상: 김승옥·이청준 소설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5, 2017.

배하은, 「'시민'적 주체와 이념의 문학사적 재구성」, 한국현대문학연구, 2016.

우정권, 『한국 근대 고백소설의 형성과 서사양식』, 소명, 2004.

_____, 「1900~10년대 한국 근대 고백적 단편 서사의 양상 연구」, 국어국문학 127, 2000.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이규현 옮김, 나남, 1990.

_____, 『안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오트르망 옮김, 난장, 2011.

설혜경, 「김승옥 소설의 죄의식의 경제와 자본주의 논리」, 현대문학의 연구 48, 2012.

송태욱, 『김승옥과 고백의 문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윤재민, 「한국적 표현주의 양식화에 대한 고찰: 후기 세속시대 한국의 기독교 심학 담론과 김현」, 한국현대문학연구 67, 2022.

조르조 아감벤, 『세속화 예찬』, 김상운 옮김, 난장, 2010.

진태원, 「코기토, 소유적 개인주의, 예속적 주체화 -서양 근대에서 개인과 개인주의-」, 민족문화연구 89, 2020.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 외 옮김, 열린책들, 2003.

한은주, 「「생명연습」에 나타난 '자기 세계'의 실존적 의미와 고백의 연행 서사」, 고향논집, 2021.

홍태영, 「민족주의적 통치성과 '국민' 만들기」, 문화와 정치, 2019.

<Abstract>

The Christian experience on the confession of
‘Self’ in Kim Seung-ok's “Life Practice”
and the tendency of subjectfication of it

Lee, Mijin

Christianity serves as important indicators reflecting the spiritual perspective of 4.19 generation, emerged during the era of Korean modernization in 60s. The famous critic of the group, Kim Hyun mentioned the problem of the indigenization of Christianity in Korea as a significant point in contemporary literary forms, in his study “Reflections on the Form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For writers like Kim Seung-ok and Lee Cheong-joon, Christian experiences also function as crucial foundations for spiritual formation. For the reason,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trend of Christian indigenization in Kim Seung-ok's “Life Practice” with the aspects of the formation of confession and extend it to a discussion on the subjectfication (assujettissement in French) a concept argued by Althusser and Michel Foucault as a subjectivity of industrialized societies. Through the self-confessional nature of Kim Seung-ok's “Life Practice”, the subversive subjectivity of the “Self-world,” which can be seen as representing the psychological mechanism unique to the novel, exhibits a complex aspect that cannot simply be understood within the dichotomy of good and evil, as it questions the survival possibility of the subject in the turbulent era where traditions rapidly receded, and modern values inundated. Among Kim Seung-ok's early short stories, “Life Practice” demonstrates inevitable

skepticism towards Christianity as a mimicry of evil, showing how it influences the defiance within the “Self-world”. Here, the “Self” is not a critique of the form of freedom given by modern conditions but is formed based on an epistemological foundation of impossibility in itself.

Key words: 1960s Korean Literature, Kim Seung-ok, Michel Foucault, Subjectification(Assujettissement), Confession

투 고 일: 2024년 2월 15일

심 사 일: 2024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12일

수정마감일: 2024년 3월 25일